

2020 문화계 결산 <3> 문학·문화계

아시아 문학 100년 조명 페스티벌 열려

5·18 40주년 오월문학제 행사
동주문학상 김룡·강주 시인 선정

올해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문화계도 적잖은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에도 아시아문학페스티벌, 5·18 40주년 기념 오월문학제 등 의미있는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신화와 여성'을 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은 아시아 문학 100년을 조명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운영했으며 민주와 인권을 실천해온 여성작가들이 참여했다. '아시아작가와의 만남' '아시아작가 다큐멘터리 상영회' 외에도 맨부커상 수상 작가 한강과 신형철 문학평론가의 특별대담도 진행됐다.

올해 아시아문학상은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당시 성폭행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사한야카르트의 '여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가 차지했다. 작가는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파키스탄군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동주문학상에는 김룡·강주 시인이 공동 선정됐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동주문학상은 시인 운동주의 삶과 문학정신을 잇고 창작 활성화를 취지로 제정됐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한 동주해외작가상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활동 중인 한혜영 시인이,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은 손웅상 시인이 선정됐다.

문학계에서도 5·18 40주년을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무엇보다 전국의 시인, 작가들의 결례시화 200여 점이 국립 5·18민주묘지 일대와 민주열사 묘역에 걸려 눈길을 끌었다. 오월문학제는 역사적 공간인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다.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증언의 문학에서 평화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광주를 말한다' 작가 토크 장면

의 역사로-5월항쟁 문학의 진로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환난을 견뎌낸 변두리 삶을 형상화한 공선옥의 소설집 '은주의 영화'가 2020 5·18문학상 본상 수상작에 선정됐으며, 5월시동인은 5·18 40주년을 기념해 '시판화전'을 개최했다. 화가 19명도 참여해 5·18 기록관에서 열린 전시는 5월시동인 시집 제7집 '깨끗한 새벽'이 지난 94년 6집 출간 26년 만에 출간돼 의미를 더했다.

정도상 소설가는 5·18 그날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장편 '꽃잎처럼'을 발간해 광주항쟁 4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정 작가는 광주의 노래,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표지석 제막식 참석 차 광주를 찾기도 했다.

지역에서도 의미있는 작품 출간이 잇따랐다. 광주출신 이진 작가가 '하늘, 불의 향기'로 역사 이면에 드러워진 허균의 삶을 그렸으며 광양 출신 박혜강 소설가는 장작집 '바깥은 우중'을 발간했다. 또한 조선의 시인은 남

송시집 '꽃으로 오는 소리'를 출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으로 출판계는 바이러스와 전염병 관심이 높아지고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 확대로 소설 판매량이 늘었다. '청소년' 'SF소설' '신진작가'는 잘 팔리는 책들의 공통 키워드였다. 교보문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1월 1일-9월 20일) 한국소설 판매는 전년 대비 30.1%의 신장률을 보이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판매가 가장 많은 한국소설은 손원평 '아몬드'였다.

어려워진 경제 현실 탓에 부와 투자에 대한 책들도 인기를 끌었는데, 부와 행운의 비밀에 대한 사례 분석과 성찰을 담은 '더 해빙 The having'이 인기를 끌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감염병과 재난을 다룬 소설 출간도 잇따랐다. 그 가운데 카뮈의 '페스트'가 인기를 끌었으며 문학동네, 민음사, 열린책들 등에서 출간된 다양한 작품이 판매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시대 대표 여성시인 이옥봉 삶 소설화

영광 출신 장정희 '옥봉' 펴내

남녀 구분이 엄했던 조선시대 옥봉(玉峰)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왕실의 계보를 잇는 집안에서 서녀로 태어났다. 시를 짓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다. 또한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남자를 선택해 접으로 살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늘 시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렸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답을 남으면 안 되는 시대였던 터라, 시재(詩才)는 오히려 족쇄가 됐다.

조선의 대표적 여성 시인을 꼽으라면 허난설헌, 황진이, 이매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명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바로 이옥봉. 옥봉은 자신이 쓴 시 한편으로 인해 사랑하는 남편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채 홀로 쓸쓸한 생을 살아야 했던 비련의 여인이다.

옥봉의 생애를 다룬 장편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영광 출신 장정희 작가가 펴낸 '옥봉'(강)은 천부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생을 살다간 이옥봉에 초점을 맞췄다. 작품은 2020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옥봉의 시는 조선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에서 더 알아줄 만큼 뛰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웃을 외면하지 못해 대신 소장을 써주게 되



면서 곡절을 겪는다. 임란 직전 남편으로부터 내쳐지고, 이후로는 종적마저 묘연해진다. 언제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당신들은 내게 시를 '재앙'이라 말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내게 시는 오로지 나의 존재 증명이자 여자로서, 서녀로서, 소설로서 살아야 했던 내 생의 전부를 내건 발언이고 항변이고 싸움이었던 거지요."

옥봉을 모티브로 작품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던 순간은 여전히 생생하다. 작가는 "처음 시를 몸에 감고 물에 빠져 죽은 여인의 이야기를 접한 순간, 운명에 소름이 일었다"며 "그게 사실이든 신화적인 상상이든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천사를 쓴 임철우 작가는 "수백 년 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마침내 작가 장정희의 손끝에서 생생하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한다"고 평한다. 한편 장 작가는 2004년 '문학과 경계'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소설집 '홀, 스위트 홈'과 청소년 소설 '백지 GO 박자GO'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광주 랜선 관광추천 QR코드' 개발

QR코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관광재단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관광코스를 소개하는 '광주 랜선 관광추천 QR코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QR코드는 광주에서 즐길 수 있는 의향, 여행, 미향 등 테마여행 코스는 물론 광주만의 힐링투어, 근현대 문화투

어, 체험형 투어를 소개하며, 주요내용을 광주 관광지도로 표현해 가독성을 높였고 관광객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관광재단은 이 QR코드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광주 관광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광주 소재 대표 관광지에 비해 관광객이 관광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복원 공개
옛 목포세관 본관 터·창고 문화재

올해는 우리나라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뜻 깊은 해다.

연등회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음력 4월 8일에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행하는 불교행사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지 못할 때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네스코는 연등회가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 온 포용성으로 국제,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점이 높이 평가했다.

국내를 물론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측우기(測雨器)가 국보로, 측우기를 놓는 받침인 2점의 측우대(測雨臺)는 국보로 승격됐다.

올해는 강진군 성전면 월남사지(月南寺址)에 있는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이 해체 3년만에 복원, 일반에 공개됐다. 높이 8.4m의 전라도 대표 백제계

석탑으로 국보 제9호인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비교되는 조적식 석탑이다. 최근 발굴조사 과정에서 백제기와가 발견돼 전남 최초의 백제사찰로 관심을 끌었다.

옛 목포세관 본관 터와 창고는 국가 등록문화재가 됐다. 목포세관은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海關)이라는 명칭으로 관세 업무를 시작했다. 1907년 세관(稅關)으로 개칭된 뒤 목포진에서 1908년 현재 위치로 옮겨와 건립됐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대나무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곳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대나무 군락지다. 왕대와 솔대가 분포하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물여새 등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서의 가치가 크다.

또한 담양 장평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이 보물로 지정돼, 건물에 투영된 의미와 가치가 조명받았다. 이밖에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긴 활쏘기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활을 다루고 쓰는 방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삼층석탑

법, 세대 간 단절 없이 이어진다는 점 등이 평가를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해 가장 잘 다듬은 말 '언택트' 대체 '비대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올해 새로 유입된 외국 용어를 대체한 '다듬은 말' 중에서 '비대면 서비스' 등 3개가 매주 실시된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언택트 서비스'를 바꾼 '비대면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뤄지는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올 한해 다듬어진 말은 모두 145개다. 매주 선정한 대체어를 놓고는 국민 수용

도 조사를 해 왔다. '비대면 서비스'는 '뉴노말'을 대체한 '새 기준, 새 일상', '롱폼'을 바꾼 '긴 영상, 긴 형식'과 함께 수용도 조사에서 적절하다는 반응이 94.4%로 가장 높았다.

다듬은 말로 대체된 외국 용어 145개 중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용어는 '메가 리전'(76.7%)이었다.

/연합뉴스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을이 제 몸을 한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담으로 칠해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닦아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새 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시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자본세라이어 신선
강대선

* 7월 발간
김남수 시집 - 동근 보름 보름 아프다

* 8월 발간
정영주 시집